

성인기의 애착측정: 면접과 자기보고형 척도들에 관한 개관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논문은 성인기 애착을 측정하는 면접 방법과 자기보고형 질문지 척도들을 개관하였다. 면접방법으로 임상전집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성인애착면접을 개관하였으며 자기보고형의 질문지 척도들은 Hazan과 Shaver의 3범주 모델을 기초로하는 척도와 Bartholomew의 4범주 모델을 기초로 하는 척도 및 3범주와 4범주를 조합한 척도로 나누어 개관하였다. 결론으로 애착의 구성개념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바탕으로 애착의 4범주 모델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성인애착면접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질문지형 애착척도의 제작이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핵심어: 애착 · 면접 · 질문지

성인기 애착을 연구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애착이라는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하였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의 형태로 전생애 동안 계속된다는 볼비(Bowlby, 1969/1982)의 주장을 입증하고 애착이 성장한 이후의 개인의 성격이나 정신병리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다양한 척도들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성인기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들은 구조와 형식에서 다양할 뿐아니라 현저한 개념적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인에 기인된다(Heiss, Berman, Sperling,

1996). 첫째, 애착이라는 구성개념은 영아기 동안에는 부모-자녀 관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었으나 성장과 함께 부모-자녀관계는 물론 이성과의 애정관계나 친구관계와 같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애착의 상이한 요소들을 강조하고 서로 다르게 조작하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서 Hazan과 Shaver (1987)는 자기에 초점을 맞춘 척도를 개발하였고 Bartholomew와 Horowitz (1991)는 자기와 타인, 양자의 속성에 기초한 애착척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애착의 인지적 요소(Berman & Sperling, 1991; Berman, 1988)나 애착의 행동적 표현(West, Sheldon & Reiffer, 1987)을 강조하는 애착척도도 있으나 각 척도

의 하위척도들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이 개관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애착척도들은 성인기 애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면접방법과 다양한 자기보고형 척도들을 개관하고 그것들의 구조와 형식을 바탕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는 동시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려고 한다.

면접

성인기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면접방법에는 George 등(George, Kaplan & Main, 1985)에 의해 개발된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이 있다. 이것은 반구조화된 면접으로서 성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란 '애착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하고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으로 정의된다(Main, Kaplan, & Cassidy, 1985). Bowlby (1969)에 의하면, 영아는 양육자의 접근 가능성과 반응성에 대해 내적으로 표상된 기대세트를 형성하며 이 조직화된 기대가 내적 작동모델로 기능한다.

성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영아의 애착행동에 대한 부모의 민감성을 결정하고 그것은 다시 그들의 영아기 자녀가 부모의 민감성과 상응하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도록 한다. 부모가 그들의 아동기 동안 경험한 애착관계를 기초로 형성한 정신적 표상인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영아의 애착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한다고 가정된다. 그 예로서 안정되지 못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부모들은 영아의 애착신호가 현재의 마음상태를 위협하기 때문에, 영아가 나타내는 괴로움이나 공포 혹은 불안의 신호들을 왜곡하거나 차단한다. 대조적으로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부모들은 영아의 애착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와같은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 개념을 기초로하는 성인애착면접은 성인들에게서 아동기 동안 형성한 애착과 관련된 자서전적 기억들을 인출하고 현재의 조망에서 이 기억들을 평정하도록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성인애착면접은 아동기 경험에 대한 성인들의 현재의 정신적 표상을 평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과거의 관계에 대한 기술,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지원적 혹은 모순된 기억들에 관한 기술 그리고 부모와의 현재의 관계를 기술하게 한다.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애착면접은 아동기 동안의 가족구성원들에 관한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여 부모와의 아동기 관계를 기술하는 특정한 형용사들을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연구대상자들이 형용사를 선택하면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어느 쪽 부모를 더 가깝게 지각했는지를 질문한다. 또한 아동기 동안 당황하고 상처받고 아플 때 무엇을 하였고 부모와의 분리와 관련하여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에 의해 거부당한다고 느낀 일이 있는가를 질문한다. 동시에 자신의 성격이 이 경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

해서도 질문한다. 여기에 덧붙여 아동기 동안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왜 그렇게 반응하였고 시간경과와 함께 부모와 자신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아동기나 성인기에서의 중요한 인물들의 죽음으로 경험한 상실경험에 대한 질문도 이루어진다.

면접내용에 대한 평정은 일차적으로 면접대상자들에 의해 보고된 아동기 동안의 사건들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 경험과 그것들의 영향을 기술하고 평가하는 면접대상자들의 현재의 생각이나 사고의 일관성에 기초한다(Main & Hesse, 1990). 다시 말하면 면접은 실제적인 아동기 동안의 애착 안정성을 평정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애착에 관한 현재의 마음상태를 평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이 마음상태가 자녀와의 애착관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간주되므로 성인애착면접은 자주 부모-아동 상호작용의 질적 특성을 예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약 1시간동안 이루어지는 성인애착면접의 결과는 영아들의 낯선상황 애착분류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주된 범주와 하나의 부가적 범주로 분류된다:

자율적 혹은 안정된 성인들(Auto-nomous or secure adults: F): 이 유형의 개인들은 애착관계를 중요시하고 애착이 자신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애착경험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애착과 관련된 경험들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일관성있게 기술할 수 있다.

거부적 성인들(Dismissing adults: D): 이 유형은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거나 안정된 애착관계를 보여주는 구체

적 사건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전의 애착경험들을 논의하는 것을 회피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이상화하는 경향도 있다.

몰두된 성인들(Preoccupied adults: E): 이 유형의 성인들은 아직도 과거의 애착경험에 몰두되어 있으며 그것들을 일관성있게 기술하지 못한다. 그들은 부모와의 현재 관계를 이야기할 때 화를 내거나 분노하기도 한다.

미해결의 성인들(Unresolved: U): 심리적 외상이나 상실경험을 해결하지 못한 성인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외상적 경험에 관해 일관성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애도나 슬픔의 과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해결 성인들의 외상적 사건에 대한 기술은 비합리적이고 혼란되어 있으며 근거없는 공포나 근거없는 죄책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들은 외상적 사건의 발생 그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

성인애착면접에 기초한 부모의 애착분류와 영아의 낯선상황 절차에서의 애착분류가 일치한다는 증거는 많이 있다(Fonagy, Steele, & Steele, 1991; Ainsworth & Eichberg, 1991; Main & Goldwyn, 1988). 즉 자율적 성인들은 안정된 영아의 부모들이며 거부적 성인들은 불안/회피적 영아의 그리고 몰두된 성인들은 불안/양가적 영아의 부모들인 동시에 해결되지 않은 슬픔을 갖는 성인들은 혼란된/방향감각을 잃은 영아의 부모들이라는 것이다.

성인애착면접은 반구조화된 질적 애착 측정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양적 분석에

서 사용될 수 있는 엄격한 분류체계를 지니고 있어 마치 표준화된 검사로부터 나온 결과들처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평정자간 신뢰도가 성인애착면접에서는 중요시된다.

Bakermans-Kranenburg와 van IJzen-doorn(1993)은 성인애착면접을 사용하여 두달 간격으로 두 번 면접을 실시하고 시간경과에 따른 면접도구의 신뢰도와 면접자간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면접의 결과들이 기억능력이나 언어지능 혹은 사회적 바람직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연구자들이 두달의 시간간격을 선택한 이유는 2개월보다 더 짧은 기간은 첫 면접을 기억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2개월보다 긴 기간은 변화하는 인생사건들이 애착경험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정신적 표상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연구결과 55%의 어머니들이 자율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고 24%가 거부적 애착양식을 그리고 20%가 몰두된 애착양식을 나타내었으며 미해결 집단이 포함되었을 때 자율적 49%, 거부적 18%, 몰두된 16% 그리고 미해결 17%로서 선행연구들(Fonagy 등, 1991; Ainsworth & Eichberg, 1991)과 일치하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미해결의 비율은 낯선 상황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van IJzendoorn, Goldberg, Kroonenberg, & Frenkel, 1992)에서의 혼란된(D) 애착양식의 비율(15%)과 유사하여 신뢰로운 결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동시에 두 번의 면접에 걸쳐 71%의 연구대상자들이 동일한 애착범주로 분류됨으로써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여기에 덧붙여 반구조화되고 이야기식의 면접특성에도 불구하고, 면접자 효과는 부재하였으며 애착과 관련되지 않은 자서전적 기억, 언어지능과 동작지능 및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유의한 변별타당도를 나타내었다.

3개월 간격으로 성인애착면접을 실시한 Sagi 등(Sagi, van IJzendoorn, Scharf, Koren-Karie, Joels & Lfra Mayseless, 1994)의 연구에서도 면접자간의 높은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여주었고 애착과 관련없는 기억이나 지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높은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최근에 와서 성인애착면접은 다양한 임상적 전집에서도 그것의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Bakermans-Kranenburg와 van IJzendoorn의 연구 및 Sagi 등의 연구, 모두 정상성인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임상적 전집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면 성인애착면접의 활용범위는 대단히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병리적 문제로 입원한 청소년 환자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성인애착면접을 사용하여 연구한 Rosenstein과 Horowitz(1996)는 애착에 관한 청소년의 마음상태가 임상적 진단과 관련되어 있고 그들의 성격차원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 증거로서 거부적 애착양식을 갖는 청소년들은 행동장애나 약물남용장애, 자기애적 혹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및 편집증적 성격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많았고 몰두된 애착양식을 갖는 청소년들은 정서장애, 강박관념-강박행동 장애, 경계선적 성격장애, 정신분열증적 성격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예상한대로 애착의 4범주 체계를 사용했을 때는 2%의 청소년들이 그리고 3범주 체계의 경우에는 3%만이 자율적 애착양식을 갖는 청소년으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청소년 환자 모두가 불안정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Dozier, 1990)와 일치하였다. 정신병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애착양식과 자살행동 역사와의 관계를 연구한 Adam, Sheldon-Keller 및 West(1996)와 애착양식과 MMPI-2에 의해 분류된 정신병적 중후와의 관계를 연구한 Pianta, Egeland 및 Adam(1996)에 의해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들이 도출됨으로써 성인애착면접은 임상적 전집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성인애착면접은 언어로 이루어지는 반구조화된 면접이기 때문에, 특정한 문화가 갖는 특성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독특한 의미에 크게 의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1993), 이스라엘(Sagi 등, 1994) 및 미국(Benoit & Parker, 1994)과 같이 상이한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에서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성인애착면접의 타당성과 활용가능성을 높여준다. 최근에 와서 성인애착면접은 Rosenstein과 Horowitz의 연구에서처럼 부모 역할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과 성인초기 전집들에게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성인애착면접이 갖는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에도 불구하고, 면접방식에 의한 애착측정은 실시하기 어려울 뿐아니

라 그것의 평정을 위한 깊은 전문적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면접방법이 갖는 이와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1980년대 후반부터 더 간편하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성인기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기보고형의 질문지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Hazan과 Shaver(1987)의 강제선택 애착척도는 그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자기보고형 애착척도

Hazan과 Shaver의 범주척도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들은 대부분 Hazan과 Shaver(1987)의 강제선택형 범주척도에 의존한다. Hazan과 Shaver는 Bowlby(1982, 1973)의 주장대로 인생 초기에 이루어진 사회적 경험에서의 차이가 타인과의 관계형성방식에 비교적 지속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가정하였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Bowlby의 이론에 의하면, 어린 아동은 계속된 상호작용을 통하여 양육자가 양육적이고 반응적인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관심을 받고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에 해당하는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게 된다. 개인의 내적 작동모델은 전생애동안 개인의 기대와 지각 및 행동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관한 Bowlby의 이론을 바탕으로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의 애정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애착이론을 활용하였다. 그들은 인생초기의 양육자와의 관

표 1. 세가지 애착양식에 대한 Hazan과 Shaver의 기술

애착양식	기 술
안정된	나는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비교적 쉽다고 생각하며 내가 타인에게 의지하고 그들이 나에게 의지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타인에게 버림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으며 또한 타인이 나에게 지나치게 많이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회피적	나는 타인과 가까워질 때 다소 불편함을 느낀다. 나는 타인을 완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나는 겁이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와 더 가까워지려고 할 때 나는 오히려 신경과민이 된다.
불안/양가적	내가 지나치게 많이 타인과 가까워지기를 원할 때가 있어 타인들은 오히려 나를 꺼린다고 생각한다. 나는 자주 내 파트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그(그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안해한다. 나는 파트너와 완전히 융합되기를 원하나 이러한 나의 소망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놀라게하여 그들을 떠나버리게 한다.

제가 성인의 애정관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낭만적 사랑 그 자체가 아동-양육 제공자 사이의 애착과 유사성을 공유하는 애착과정이라고 제안하였다. 다시 말하면 성인들의 낭만적 사랑은 개인의 애착역사에 따라 다소 다르게 경험되는 애착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성인의 낭만적 사랑과 영아의 애착형성과정을 동일시한 Hazan과 Shaver는 Ainsworth, Blehar, Waters, 및 Wall(1978)에 의해 최초로 확인된 영아의 안정된(secure), 회피적(avoidant) 및 불안/양가적(anxious/ambivalent) 애착양식과 상응하는 성인 애착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일문항의 자기보고형 애착척도를 개발하였다. <표1>은 각 애착양식에 해당하는 진술문들이다. 연구대상자들은 세가지 애착양식 중 어느 것이 그들의 낭만적 관계를 가장 잘 기술하는가를 결정

해야만 한다. 이 척도의 기초가 되는 중심적 전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성인의 낭만적 관계에서 각 개인은 그의 영아기 동안 발달된 애착양식에 기인된 특징적인 대인관계양식에 가담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의 질적 특성은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로 유지되어(성격특성의 일부가 된다) 개인의 대인관계 양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Hazan과 Shaver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들의 범주척도에 의해 확인된 세가지 애착양식의 비율(표본1: 안정된, 56%; 회피적, 25%, 불안/양가적, 19%; 표본2: 안정된, 56%; 회피적, 23%, 불안/양가적, 20%)은 영아연구(Campos, Barrett, Lamb, Goldsmith, & Stenberg, 1983)에서 보고된 상응하는 애착양식의 비율과 대단히 유사하였다(안정된, 62%; 회피적,

23%; 불안/양가적, 15%). 판별분석 결과에서도 제1함수가 안정된 피험자와 안정되지 못한 피험자를 구별하였고 제2함수는 두 개의 불안정한 집단을 구별함으로써 Ainsworth 등의 결과와 일치하는 세가지 유형의 애착양식이 확인될 수 있었다.

또한 서로 상이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에서 예상한 대로 차이를 보였다. 예를들면 안정된 연인들은 행복, 신뢰, 우정으로 특징되는 관계를 형성한 반면, 회피적 연인들은 친밀성의 공포와 정서적 동요 및 질투로 특징되는 관계를 형성하였다. 대조적으로 불안/양가적 애착을 지닌 연인들은 변화가 심한 정서와 강한 질투심 및 파트너에게 강박관념적으로 몰두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Ainsworth 등이 제안한 세가지 애착양식의 특성과 유사하였다. 또한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파트너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었는데(평균 10.02년), 불안/양가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의 관계는 가장 짧은 특징을 나타내었다(회피적 애착양식 5.97년, 불안/양가적 애착양식 4.86년).

Hazan과 Shaver의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들은 Feeney와 Noller(1990)에 의해 그대로 반복되었다. 즉 애착양식의 비율은 물론 사랑을 지속하는 기간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었고 판별분석 결과도 Hazan과 Shaver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또한 안정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타인에게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었으며 높은 자기존중감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대조적으로 불안/양가적 애착양식을 갖는 개인들은 파트너에게 강박 관념

적으로 몰두하고 정서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사랑에 대한 극단적인 그들의 경향성을 반영하였다. 한편 회피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가장 높은 친밀성 회피를 나타내어 이 연구에서 나타난 세가지 애착양식의 특성은 Ainsworth 등(1978)이 제시한 영아기 애착양식의 특성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Feeney와 Noller의 연구는 성인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애착조망의 유용성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Hazan과 Shaver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Hazan과 Shaver 척도의 정교화

Hazan과 Shaver의 강제선택형 범주척도가 갖는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세 개의 애착유형 각각을 5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장 높은 평정을 받는 애착양식이 개인의 애착범주로 선정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Kirkpatrick & Davis, 1994; Feeney, 1991; Levy & Davis, 1988). 이 접근방법은 세가지 애착양식들이 상호 배타적이라는 Hazan과 Shaver의 가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안정된 애착양식에 대한 평정은 회피적 애착양식과 강한 부정 상관을 나타내고 불안/양가적 애착양식과는 약한 부정 상관을 보였으나 회피적 애착양식과 불안/양가적 애착양식에 대한 평정은 서로 상관이 없어 동일한 사람이 회피적 애착과 불안/양가적 애착,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5점 리커트형 척도방식도 불연속적 범주척도가 갖는 애착양식의 상호배타성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사용한 연구자들은 두 개의 애착양식 모두에 높은 점수를 얻어 제외되는 연구대상자들을 어떤 애착범주에도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한다. Kirkpatrick과 Davis (1994)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들 중 89.3%의 여성과 85.7%의 남성들을 애착범주에 할당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Hazan과 Shaver의 불연속적 범주척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각 애착양식은 관계의 상이한 측면에 대한 진술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예를 들면 안정된 애착은 가까움에 편안하고, 타인들에게 의존할 수 있는 특성을 포함한다), 반응자들은 모든 내용이 자신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기술을 시인하거나 시인하지 않거나 해야 한다. 둘째, 반응자들은 자신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에 각 애착양식이 개인을 기술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결과 개인차를 연구할 수 없다. 셋째, 불연속적 척도는 세 개의 애착양식이 상호배타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애착양식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할 수 없는 동시에 세개의 애착양식이 성인애착을 규정하는 타당한 기술인지 아닌지를 검토할 수 없다.

불연속적 범주척도가 갖는 이와같은 문제점 때문에 연속적 척도인 질문지 척도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그 첫 시도는 Collins와 Read(1990)에 의해 이루어졌다.

1. Collins와 Read의 성인애착척도

Collins와 Read(1990)는 Hazan과 Shaver (1987)의 범주척도를 기초로 성

인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연속적 척도를 개발하였다.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라고 불리워지는 이 척도는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인분석은 이 척도가 개인이 가까움에 편안한 정도(친밀성), 타인에 대한 의존성 및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의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힌다.

원래의 AAS는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15개의 문항은 Hazan과 Shaver의 세가지 애착양식에 대한 기술을 구성요소로 세분하고 각 애착양식마다 5개의 문항을 포함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6개 문항은 애착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되는 양육자에 대한 의존가능성과 필요할 때 양육자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세 개의 문항 및 양육자에 대한 분리반응과 관련된 세 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세 개의 애착양식 각각에 대해 일곱 개의 문항이 만들어진 셈이다. 21개의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요인분석결과 분리반응과 관련된 세 개의 문항이 1이하의 고유값을 나타내고 별개의 요인으로 묶였을 뿐 아니라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요인회전에서 세 개의 문항들은 하나 이상의 요인에 부하됨으로써 제외될 수밖에 없었고 최종적으로 18개의 문항만이 남게되었다.

최종적인 18개의 문항을 구성하는 세 개의 요인 즉 의존성, 불안 및 친밀성 사이의 상호상관을 계산한 결과 의존성과 친밀성 요인은 보통의 상관($r=.38$)을 지니고 있고 불안과 의존성 요인은 약한 상

관($r=.24$)을 그리고 불안과 친밀성 요인 간에는 아무런 상관도 나타나지 않아 서로 독립적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동시에 세가지 요인들에 대한 Cronbach alpha는 의존성 .75, 불안 .72 그리고 친밀성 .69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71, .52 그리고 .68이었다.

Collins와 Read는 성인애착척도가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양가적 애착양식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요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각 애착양식들의 기초가 되는 세 개의 차원(의존성, 불안 및 친밀성)을 밝혔다고 제안한다. 그들에 의하면, 제1요인인 의존성과 제3요인인 친밀성은 안정된 애착과 회피적 애착 양자로부터 나온 문항들을 포함하였고 제2요인인 불안은 불안/양가적 애착양식과 안정된 애착양식 양자로부터 나온 문항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세 개의 차원과 Hazan과 Shaver(1987)의 세가지 애착양식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별분석(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이 실시되었다. 유의한 두 개의 판별함수 중 제1함수는 회피적 애착유형과 안정된 및 불안한 애착유형을 구별하였고 제2함수는 불안한 유형과 안정된 및 회피적 유형을 구별함으로써 Hazan과 Shaver척도의 애착범주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후속적으로 실시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에서도 3-군집 해(three-cluster solution)가 우세한 군집으로 확인됨으로써 Hazan과 Shaver의 3범주와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성인애착척도에 의해 측정된 세가지 차원들은 Hazan과 Shaver가 기술한 애착양식의 기초가 되는 핵심구조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각 군집에 할당된 연구대상자들의 비율은 Hazan과 Shaver의 척도나 판별분석에 의해 획득된 자료와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군집분석에서는 불안한 애착양식에 더 많은 연구대상자들이 할당되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이전에 안정된 애착양식에 분류된 사람들이었다. 이와같은 애착양식에서의 이동은 Collins와 Read가 개발한 연속적 애착척도가 애착양식 그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애착양식을 구성하는 기저의 차원들을 측정하는 데 기인한다. 그 예로서 Hazan과 Shaver의 척도에서 자신을 안정된 애착양식 집단으로 분류한 약간의 사람들이 이후에 군집분석에서 불안한 애착양식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친밀성과 의존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동시에 불안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판별분석은 불안한 애착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약간을 회피적 애착범주로 분류하였다. 애착양식의 변동이유는 불안에서 높은 점수와 함께 친밀성과 의존성에서 대단히 낮은 점수를 얻은 데 기인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Collins와 Read는 두가지 유형의 불안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Hazan과 Shaver의 범주척도보다는 그들의 차원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차를 연구하기 위한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Collins와 Read의 연구는 단지 세가지 범주만으로 성인의 애착양식을 기술하는 것은 성인애착의 유형을 지나치게 제한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Ainsworth 등이 분류한 세가지의 영아 애착양식도 8개의 하위양식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 것처럼(Main & Solomon, 1986), 성인의 애착양식을 기술하기 위해서도 보다 더 복잡한 범주체계가 요구된다는 것이 Collins와 Read의 주장이다.

2. Simpson의 애착질문지

데이트를 하고 있는 커플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애착양식이 이성과의 낭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6개월간 종단적으로 연구한 Simpson(1990)은 Hazan과 Shaver(1987)의 단일문항 범주척도를 기초로 13문항의 자기보고형 애착질문지를 구성하였다. 13개의 문항은 다섯 개의 안정된 애착문항, 네 개의 회피적 애착문항 그리고 네 개의 불안/양가적 애착문항을 포함하며 응답자의 반응은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 7점 리커트 형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애착양식에 대한 높은 점수는 더 큰 안정성, 더 큰 회피 및 더 큰 불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정된 애착양식의 Cronbach alpha는 0.51, 회피적 애착양식 0.79 그리고 불안/양가적 애착양식 0.59였다.

또한 안정된 애착양식은 불안/양가적 애착양식과 부적으로 상관되어 있었고 안정된 애착양식과 회피적 애착양식은 더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회피적 애착양식과 불안/양가적 애착의 관계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회피적 애착양식을 소유한 여성들은 다소 더 많이 불안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선행연구들(Hazan & Shaver, 1987; Collins & Read, 1990)과 일치되게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양가적 애착양

식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질적으로 상이한 낭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증거로서 안정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더 높은 수준의 상호 의존, 신뢰, 전념 그리고 만족으로 특징되는 관계에 가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안정되지 못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더 적은 신뢰와 더 적은 만족으로 특징되는 관계에 몰두하였다. 그들은 강한 의존성과 의심 및 우유부단성을 지니고 있고 그들의 관계에서 불만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 안정된 애착양식의 소유자들과는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Simpson의 연구를 통하여 상이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낭만적 관계에서 서로 다른 패턴의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Simpson의 연구는 Collins와 Read(1990)와는 상이한 애착질문지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Hazan과 Shaver 척도의 재구조화 - Bartholomew의 4범주 모델

Hazan과 Shaver가 성인기 애착의 3범주 모델을 제안한 것과 대조적으로 4범주 모델을 제안한 연구자들이 있다. Bartholomew (Bartholomew, 1990; Bartholomew & Horowitz, 1991)는 인생초기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내면화된다는 Bowlby의 주장에 따라 두가지 유형의 내적 작동모델을 가정하였다. 즉 자기에 대한 모델과 타인에 대한 모델이 그것이다. Bowlby에 의하면,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구성하는 핵심적 특징은 애착

자기에 대한 모델

		긍정적 (낮은)	부정적 (높은)
타인에 대한 모델	긍정적 (낮은)	안정된 친밀성과 자율성에 편안한	몰두된 관계에 몰두된
	부정적 (높은)	거부적 타인의 친밀함에 대해 거부적이며 반의존적인	두려워하는 타인의 친밀함을 두려워하고 사회적으로 회피적인

그림 1. 성인 애착의 모델

인물이 지원과 보호의 요구에 반응적인 사람으로 판단되는가와 자기(self)는 애착인물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동하는 사람으로 판단되는가의 두가지 차원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타인에 대한 개인의 이미지인 반면, 후자는 자기에 대한 개인의 이미지에 해당한다.

이와같은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은 모두 정적이거나 부적으로 이분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Bartholomew에 의하면, 자기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은 사랑과 지원의 가치가 있는 자기 혹은 사랑과 지원의 가치가 없는 자기로 이분되고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은 신뢰할 수 있고 요구될 때 활용될 수 있는 타인 대 거부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타인으로 이분된다. 그러므로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이 서로 교차될 때, <그림1>과 같은 네 개의 애착양식이 나타난다.

네 개의 애착양식은 안정된, 몰두된, 거부적/회피적, 두려워하는/회피적 애착양식으로 구성되며 3범주 모델보다 회피적 애착양식이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회피적 애착양식을 세분화해야 하는 이유는 Main (George, Kaplan, & Main, 1987; Main & Goldwyn, 1988)에 의해 개발된 성인애착면접에서는 회피적 성인들은 주관적 슬픔을 경험하는 것을 부정하고 애착욕구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사람들인 반면, 자기보고 척도(Hazan & Shaver, 1987; Collins & Read, 1990)에 의해 확인된 회피적 성인들은 타인과 가까워지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피적 애착을 기술하는 단일적인 범주로는 성인기에서의 회피적 애착양식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Bartholomew에 의해 제안된 안정된

애착양식은 위의 <그림1>에 제시된 것처럼 2×2의 매트릭스에서 긍정적 타인모델과 긍정적 자기모델을 갖는 사람들로써 타인들은 반응적이고 수용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자신을 가치롭게 생각하는 개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애착양식은 이전의 영아연구와 성인연구에서 확인된 안정된 애착양식과 일치한다. 그러나 몰두된 애착양식은 타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자기에 대한 부정적 모델인 개인적 무가치감을 함께 지닌다. 이 양식은 Hazan과 Shaver의 불안/양가적 애착양식과 일치하고 Main의 몰두된 애착양식과 개념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몰두된 애착양식으로 명명된다.

두려워하는/회피적 애착양식은 부정적인 타인모델과 부정적인 자기모델을 갖는 개인들로써 타인들은 믿을 수 없고 거부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개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애착양식을 갖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가까운 관계를 회피함으로써 예상되는 타인의 거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비록 성인애착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에서 명백하게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이 애착양식은 Hazan과 Shaver에 의해 기술된 회피적 애착양식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대조적으로 부정적 타인모델과 긍정적 자기모델을 지니는 거부적/회피적 애착양식을 갖는 개인들은 타인들을 신뢰할 수 없고 거부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 가치감을 나타낸다. 이 유형의 애착은 Main 등 (1985)에 의해 기술된 거부적 애착양식과 개념적으로 일치한다.

Bartholomew가 제안한 성인애착의 4

범주 모델과 일치되게 Bartholomew와 Horowitz (1991)는 개인들을 네가지 애착양식에 분류하기 위하여 Hazan과 Shaver에 의해 개발된 불연속적 애착척도와 동일한 범주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표2>와 같이 네 개의 애착양식을 기술하는 네 개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자들은 네가지 애착양식의 각각과 자신이 유사한 정도를 7점 척도상에 평정해야만 한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 연구에서 이루어진 판별분석 결과 세 개의 판별함수가 도출되었고 그것은 안정된 집단의 86%, 두려워하는 집단의 94%, 몰두된과 거부적 집단 양자의 100%를 포함함으로써 표본의 92%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었다. 이 수치는 Collins와 Read의 3범주를 기초로한 성인애착척도에서 2개의 판별함수가 안정된 집단의 92%, 회피적 집단의 45% 그리고 불안/양가적 집단의 27%를 포함하고 전체 표본의 73%를 정확하게 분류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네 개의 애착양식들 사이의 상호상관을 계산한 결과, 인접한 애착양식들은 서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낮은 부적상관을 보였고 대각선상에 위치하는 애착양식들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Bartholomew의 2차원 모델에서 예상했던 애착양식들 사이의 관계와 일치하였다. 그 증거로서 안정된 애착양식과 두려워하는-회피적 애착양식 사이에는 $r(75) = -.55$ ($p < .001$)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몰두된 애착양식과 거부적/회피적 애착양식 간에는 $r(75) = .50$ ($p < .001$)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Bartholomew와 Horowitz

표 2. 네가지 애착양식에 대한 Bartholomew와 Horowitz의 기술

애착양식	기	술
안정된	타인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나에게 비교적 쉬운 일이다. 내가 타인에게 의존하고 타인이 나에게 의존할 때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내가 혼자가 되거나 혹은 타인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물두된	나는 타인과 정서적으로 완전히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자주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 만큼 타인들이 나와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나는 타인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불편하게 느끼고 때때로 내가 타인을 존중하는 만큼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걱정한다.	
두려워하는/ 회피적	나는 타인과 가까워지면 불편해진다. 나는 정서적으로는 가까운 관계를 원하나 내가 타인을 완전히 믿거나 혹은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타인과 가까워지면 상처받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걱정한다.	
거부적/회피적	나는 가까운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야만 편안하다. 내가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나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내가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이 나에게 의존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1991)에 의해 수행된 두 번째 연구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다.

동시에 두려워하는/회피적 애착과 물두된 애착으로 분류된 개인들(자기에 대한 부정적 모델)은 안정된 혹은 거부적/회피적으로 분류된 개인들(자기에 대한 긍정적 모델)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자기개념 점수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안정된 혹은 물두된 애착으로 분류된 개인들(타인에 대한 긍정적 모델)은 거부적/회피적 혹은 두려워하는/회피적 애착으로 분류된 사람들(타인에 대한 부정적 모델)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사교성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Bartholomew의 2차원 모델과 일치하였다.

애착의 3범주 모델보다는 4범주 모델이 성인기 애착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그 증거로서 Collins와 Read(1990)가 성인애착척도를 사용한 그들의 연구에서 수행된 군집분석 결과, 2-군집 해(two-cluster solution)와 3-군집 해(three-cluster solution)사이에서 상당히 큰 도약이 일어났고 3-군집 해와 4-군집 해(four-cluster solution) 사이에서는 약간 더 작은 도약이 발견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4-군집 해가 표본의 적절한 기술일 것이라는 것을 제안하나 4-군집 해를 제안하는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3-군집 해를 선택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성인애착의 4범주 모델을 지지한 또 다른 증거로서 Brennan 등(1991)의 연구가 있다. 연구자들은 알콜중독자 부모의 성인자녀들에게 Bartholomew의 4범주 모델 척도와 Hazan과 Shaver의 3범주

모델 척도를 동시에 실시하여 두 척도를 서로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부는 3범주 척도에서는 불안/양가적 범주에 그리고 4범주 척도에서는 대부분 두려워하는/회피적 범주에 분류되었다. 그러나 4범주 척도에서의 두려워하는/회피적 애착양식을 갖는 연구대상자들은 3범주 척도의 회피적 애착과 불안/양가적 애착, 양자에 분류되는 경향이 있어 4범주 모델의 2차원 구조가 성인의 애착양식을 평정할 수 있는 더 바람직한 구조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을 비교한 장휘숙(1997)은 대응분석을 통하여 4범주 모델의 안정된 범주는 3범주 모델의 안정된 범주와 유사하고 3범주 모델의 불안/양가적 범주는 4범주 모델의 거부적/회피적 범주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대조적으로 3범주 모델의 회피적 범주는 4범주 모델의 몰두된 범주 및 두려워하는/회피적 범주와 유사하여 4범주 모델은 3범주 모델의 안정되지 못한 애착범주를 세분화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동시에 4범주 모델은 3범주 모델에 맞춰 제작된 부모와의 관계유형(Hazan & Shaver, 1986)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역시 3범주 모델에 맞춰 제작된 성인애착 척도(Collins & Read, 1990)와의 관계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도 4범주 모델로 성인애착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장휘숙(1997)은 4범주 모델이 성인애착을 설명하는 더 바람직한 모델일 수 있는 기본 이유로서 영아기에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성장과정을 통하여 정교화되거나 변화됨이 없이 그대로

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끊임없이 수정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성인기의 애착관계는 영아-양육자 사이의 애착관계보다 더 복잡한 관계형성의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영아기의 애착양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보다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모델을 바탕으로 한 4범주 모델에 기초하여 성인기 애착을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 외에도 네 개의 범주로 구성되는 애착양식 모델은 면접방식을 사용하여 성인애착을 연구한 연구자들(Main & Goldwyn, 1988; 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1993)에 의해서도 이미 그 가능성이 제시되었을 뿐 아니라 아동기 애착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제4의 애착양식으로 혼란된 혹은 D패턴(Main & Solomon, 1990)의 애착양식이나 회피적/양가적 혹은 A/C 패턴(Crittenden, 1988)의 애착양식으로 보고된 바 있다.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조합: Feeney, Noller & Hanrahan의 애착양식질문지

지금까지 성인기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들은 그것이 범주척도이든 연속적 척도이든 그리고 애착양식의 수가 세 개이든 네 개이든 상관없이, 모든 도구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혹은 적어도 친밀한 관계에 해당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Feeney, Noller 그리고 Hanrahan (1994)은 애착

양식의 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고, 청년초기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낭만적 관계의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실시가능한 척도를 제작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에 따라 Feeney 등은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 양자에서 기술된 주요한 특성들을 모두 포함하는 40문항의 애착양식질문지(Attachment Style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이 질문지의 문항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6)까지 6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학생들에게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 해와 5-요인 해(five-factor solution)가 해석가능한 요인 수로 추출되었다. 3-요인 해는 전체 변량의 35.7%를 설명하였고 안정성, 회피, 불안으로 명명될 수 있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비록 불안정한 애착양식에서 문제가 있기는 하였지만, 3요인 추출은 성인애착에 대한 Hazan과 Shaver의 3범주 모델과 유사한 애착양식을 측정할 가능성이 있었다. 대조적으로 5-요인 해는 전체 변량의 43.3%를 설명하였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요인,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요인, 승인욕구요인, 관계에의 몰두요인 및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서 신뢰는 안정된 애착을 의미하는 요인인 반면, 나머지 네 개의 요인들은 안정되지 못한 애착에 해당하는 요인들이다. 네 개의 요인들과 Hazan과 Shaver 모델 및 Bartholomew 모델과의 관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closeness)—Hazan과 Shaver의 3범주 모델의 회피적 애착양식에 해당하는 특성이다.

· 승인욕구(need for approval)—Bartholomew 모델의 두려워하는/회피적 애착양식과 몰두된 애착양식의 특성에 해당한다.

· 관계에의 몰두(preoccupation with relationship)—Hazan과 Shaver의 불안/양가적 애착양식 및 Bartholomew의 몰두된 애착양식과 일치하는 특성이다.

·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relationship as secondary)—Bartholomew 모델의 거부적/회피적 애착양식의 개념과 일치한다.

Bartholomew 모델의 기초가 되는 두 개의 차원들 즉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에 따라 5-요인 해의 다섯가지 요인들을 검토해보면, 관계에의 몰두와 승인에 대한 욕구의 문항들은 주로 자기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반면,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과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 문항들은 주로 타인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 그리고 신뢰척도는 자기와 타인 양자에 대한 태도를 평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5-요인 해는 3범주 모델의 불안/양가적 애착양식에 해당하는 두 개의 요인과 회피적 애착양식에 해당하는 두 개의 요인 및 신뢰요인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면 불안은 승인에 대한 욕구와 관계에의 몰두로 구분될 수 있고 회피는 가까움에의 불편함과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로 구분될 수 있다.

·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discomfort with

전체 40문항 중 신뢰요인 8문항, 가까

움에 대한 불편함요인 10문항, 승인욕구 요인 7문항, 관계에의 몰두요인 8문항 그리고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요인(안정성, 회피, 불안)을 위한 Cronbach alpha는 .83, .83, .85였으며 5요인(신뢰,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 승인욕구, 관계에의 몰두,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을 위한 알파계수는 각각 .80, .84, .79, .76 및 .76로서 높은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계산한 결과에서도 3요인과 5요인 모두 수용가능한 수준의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군집분석결과, 두개, 세개 그리고 네개의 군집이 확인될 수 있었다. 2-군집 해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구분인 안정된 집단과 안정되지 못한 집단을 구별하였고 3-군집 해는 불안정한 집단을 몰두된 집단과 두려워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4-군집 해에서는 거부적 집단이 도출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Bartholomew 모델에서 가정된 애착양식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3-군집 해에서 구분된 세 개의 애착양식은 Hazan과 Shaver에 의해 가정된 애착양식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4-군집 해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참고할 때 세 개의 애착양식 보다는 네 개의 애착양식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서 안정된 집단은 신뢰에서 높고, 불안정한 애착을 나타내는 네 개의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자기와 타인 양자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안정된 피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두려워하는 피험자들은 신뢰에서 낮고 불안정한 애착과 관련된 모든 네 개의 요인들

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자기와 타인 양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문제는 거부적 집단의 피험자들은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과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타인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였으나 관계에의 몰두와 승인욕구에서 보통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어 Bartholomew 모델과 차이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그에 덧붙여 몰두된 집단도 관계에의 몰두와 승인욕구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긍정적 타인모형을 반영하였으나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에서 보통 정도의 점수를 얻어 Bartholomew 모델과 일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몰두된 애착양식을 갖는 개인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열망하고 극단적인 가까움을 획득하기 원하면서도 가까움에 대해 불편함을 느낌으로써 반대 감정병존현상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거부적 애착과 몰두된 애착이 대립되는 애착양식으로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몰두된 애착이라는 용어보다는 3범주 모델에서의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이 이와같은 특성을 더 분명하게 표현한다고 제안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척도가 Hazan과 Shaver의 3범주 모델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타당도를 체크하기 위해 Hazan과 Shaver의 강제-선택 척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했을 때, 3-요인 해와 5-요인 해에서 회피적 피험자와 불안/양가적 피험자들의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3-요인

해에서는 회피에 의해 그리고 5요인 해에서는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과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에 의해 두 개의 애착양식은 신뢰롭게 구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별분석에서는 네 개의 애착양식집단을 위한 증거가 제시되었고 Bartholomew의 가정과 일치하는 차원들이 제시됨으로써 이 척도가, 비록 거부적 애착과 몰두된 애착의 구별이 불완전하기는 하였지만, 4범주 모델과 일치하는 애착양식을 측정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Feeney 등이 제작한 애착척도는 3범주 모델보다는 4범주 모델이 성인기 애착을 설명할 수 있는 더 바람직한 모델임을 제시해준 셈이다. 또한 애착양식질문지의 제작 의도대로, Feeney 등은 그들의 애착양식질문지를 12-13세의 청소년들에게도 실시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낭만적 관계를 경험하지 않은 12-13세의 청소년들에게 이 애착양식질문지를 실시했을 때 높은 내적 일관성과 유의한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결론

지금까지 제작된 질문지형의 연속적 애착척도들은 3범주보다는 4범주 모델이 성인기 애착을 측정하는 더 바람직한 모델임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범주 모델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애착질문지는 아직 개발되지 못한 형편에 있다.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물론 이성과의 낭만적 사랑과 친구관계의 우정 및 개

인의 다양한 정신병리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성개념인, 애착을 연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애착척도의 제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착과 유사한 개념인 '관련성'이나 '관계'의 개념을 어떻게 구별하는가의 문제이다. 애착이론은 애착양식의 발달과 유지를 위한 특별한 구조와 과정을 가정하고 있을 뿐아니라 그것은 아동기에 뿌리를 두고 전생애를 통하여 영향력있게 지속되는 것으로 인식된다(Bowlby, 1969/1982). 대조적으로 관련성이라는 개념은 현재의 가능한 관계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애착의 개념적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만약 관련성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애착의 지표로서 부정확하게 사용된다면, 애착이라는 구성개념은 모호해지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이론의 적용은 방해를 받을 것이다(Heiss, Berman, & Sperling, 1996). 다시 말하면 다양한 관계를 측정하는 척도들은 애착양식 자체의 양식적 혹은 범주적 기술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가까움과 협력관계를 평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애착척도의 제작시에는 먼저 애착의 구성개념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애착연구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애착의 구성개념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바탕으로 애착의 4범주 모델을 충족시킬 수 있는 타당한 척도를 제작하는 것이다. 물론 새롭게 제작되는 애착척도는 성인애착면접이 갖는 단점인, 실시와 해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시간

과 노력이 요구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지형의 연속적 애착척도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장휘숙(1997).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0권 제2호, 123-138.
- Adam, K. S., Sheldon-Keller, A. E., & West, M. (1996). Attachment organization and history of suicidal behavior in clinical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 2, 264-272.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 E.,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insworth, M., & Eichberg, C. (1991). Effects on infant-mother attachment of mothers unresolved loss of an attachment figure, or other traumatic experience.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pp. 160-163). London: Routledge-Kegan Paul.
-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1993). A psychometric stud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Reliabil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9, No. 5, 870-879.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No. 2, 226-244.
- Benoit, D., & Parker, K. C. H. (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1456.
- Berman, W. H. (1988). The relationship of ex-spouse attachment and adjustment following divor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 312-328.
- Berman, W. H., & Sperling, M. (1991). Attachment and distress in the transition to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427-440.
-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Shaver, P. R., & Tobey, A. E. (1991).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al problem drink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451-466.
- Campos, J. J., Barrett, K. C., Lamb, M. E., Goldsmith, H. H., & Stenberg, C. (1983).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M. M. Haith & J. J. Campos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Infancy and psychobiology* (pp. 783-915). New York: Wiley.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rittenden, P. M. (1988). Relationships at risk. In J. Belsky & T. Nezworski(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 136-174). Hillsdale, NJ: Erlbaum.
- Dozier, M. (1990). Attachment organization and treatment use for adults with seriou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7-60.
- Feeney, J. A. (1991). *The attachment perspective o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Queensland.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191.
- Feeney, J. A., Noller, P., & Hanrahan, M. (1994). Assessing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s*. New York: Guilford press.
- Fonagy, P., Steele, H., & Steele, 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t one year of age. *Child Development*, 62, 891-905.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87).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iss, G. E., Berman, W. H., & Sperling, M. B. (1996). Five scales in Search of a construct: Exploring continued attachment to parent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7(1), 102-115.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6, No. 3, 502-512.
- Levy, M. B. & Davis, K. D. (1988). Love 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39-471.
- Main, M., & Goldwyn, R. (1988). *An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Department of Psychology, Berkeley.
- Main, M., & Solomon, J. (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in, M., & Hesse, E. (1990). Parents' unresolved traumatic experiences are related to infant disorganized attachment status: Is frightened and/or frightening parental behavior the linking mechanism? In M. Greenberg, D. Cicchetti, &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161-18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1, Serial No. 209), 66-106.
- Noller, P., Seth-Smith, M. Bouma, R., & Schweitzer, R. (1992). Parent and adolescent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A comparison of clinic and nonclinic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ce*, 15, 101-114.
- Pianta, R. C., Egeland, B., & Adam, E. K. (1996).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and self-reported psychiatric symptomatology as assessed by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 2, 273-282.
- Rosens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244-253..
- Sagi, A., van IJzendoorn, M. H., Scharf, M., Koren-Karie, N., Joels, T., & Mayseless, O. (1994). Stability and discriminant

-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 psychometric study in young Israeli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0, No. 5, 771-777.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71-980.
- van IJzendoorn, M. H., Goldberg, S., Kroonenberg, P. M., & Frenkel, O. (1992). The relative effects of maternal and child problems on quality of attachment: A meta-analysis of attachment in clinical samples. *Child Development*, 63, 840-858.
- West, M., Sheldon, A., & Reiffer, L. (1987). An approach to the delineation of adult attachment: Scale development and reliabilit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5, 738-741.

Measuring Adult Attachment: Review of the Interview and Self-report Instrument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nd self-report instruments measuring adult attachment. As the self-report instruments, attachment questionnaires based three-category model of Hazan and Shaver, and four-category model of Bartholomew were reviewed. In conclusion self-report attachment questionnaires on the basis of four category model considering the correct definition of attachment construct is urgently needed to develop for adult attachment study.

Key words : attachment • interview • questionnaire